

징계 맹갱 외에밋들 사람들의 역사

김제 광활 마을 근대 민중생활사

함 한 회

(무형문화연구원 원장)

“그 끝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넓디나 넓은 들녘은 어느 누구나 기를 쓰고 걸어도 언제나 제 자리에서 헛 걸음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 벌판은 ‘징계 맹갱 외에밋들’ 이라고 불리는 김제 만경평야로 곧 호남평야의 일부였다. 호남평야의 안에서도 김제 만경 벌은 특히나 막히는 것 없이 탁 트여서 한반도 땅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이루어내고 있는 곳이다.” (소설 아리랑에서)

소설 아리랑에서 작가는 누구라도 기를 쓰고 걸어도 언제나 제 자리에서 헛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징계는 김제, 맹갱은 만경, 그리고 외에밋 들은 ‘너른 들’ 곧 평야를 일컫는 사투리로 ‘김제 만경 너른 들’이라는 뜻이다. 이 말을 진한 전라도 사투리로 들으면 가슴이 아리다. 그 아린 이유는 말 속에 담긴 아픈 뜻이 전해지기 때문이라.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김제만경평야는 넓었다. 그러나 징계는 김제, 맹갱은 만경, 그리고 외에밋 들은 ‘너른 들’ 곧 평야를 일컫는 사투리로 ‘김제 만경 너른 들’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외에밋들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으나 가슴에만 품고 있는 역사의 일부를 들추어내고자 한다. 이 작업은 김제지역의 근현대를 쓰는 일이지만, 어디에도 기록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가의 작업처럼 남겨진 사료를 바탕으로 해석하면서 역사를 쓰는 일은 아니다. 오늘날 남겨진 기록이 없어서 기록할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나서야 했다. 오늘날을 살고 있지만, 과거를 또렷하게 기억하는 외에밋들 사람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의 대부분은 그들이 가슴에 묻고 있었던 것들이었다. 장롱 속에 깊이 두었다 꺼내 보니 먼지만 풀풀나는 사진첩들, 벽장이나 창고 속에서 잠자고 있었던 물건들을 꺼내면서 잠시 잊었던 자신들의 과거를 되살려 내기도 하였다. 마치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옛날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듯이 우리는 그들에게 옛날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이제는 옛날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는 손자들도 곁에 없고, 옛날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진다고 핀잔 아닌 핀잔을 해 줄 손녀들도 모두 떠나고 없다. 그래서 그들은 덤석 우리를 반기는 지도 모른다. 때로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낸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 이야기를 찾아 나선 우리를 반긴다. 이렇게 해서 들은 이야기들을 되도록 원형 그대로 살려내면서 김제의 근대사의 한 폭을 보여주는 역사로 기록하는 것이 우리의 작업의 주요 목표이다. 굳이 김제와 김제사람을 만나고자 한 이유는 지난 100년 동안의 근대화과정에서 농촌과 농민들의 경험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넓은 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단순히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을 새기면서 김제 한 마을을 택하여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모았다.

I. 쌀문화의 변화: 전통에서 근대로

김제만경평야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김제시가 최근에 지역의 상징물로 지평선을 내세운 것을 보더라도 산과 구릉이 많은 국토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인지도 모른다. 땅이 넓게 펼쳐진 곳을 사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쌀을 재배하여 가을이면 황금벌판을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을녘 지평선까지 맞닿은 들녘에 익어가는 벼이삭이 황금바다를 이루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벼가 익어가는 색이 누렇기도 하지만, 벼가 곧 돈이 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김제라는 지명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1200 여년 전인 757년(統一新羅 景德王 16년)에 金堤라는 명칭이 기록에 나타난다. 김제는 한문이 뜻하는 그대로라면 황금을 캐내는 독이다. 여기에서 황금은 벼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라가 통일을 하고난 이후 이 지역을 김제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전 이 지역이 백제의 통치구역이었을 때는 벽골군이라고 불리웠다. 다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지역은 삼한시대에는 마한(馬韓)의 벽비리국(僻卑離國)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벽비리(僻卑離)’는 ‘벼벌’ 즉 ‘벼의 고을’을 뜻하는 단어에 가깝다. 이처럼 지명의 접미사로 백제에서는 ‘夫里’, 신라에서는 ‘伐, 弗, 火’가 붙은 지명이 많은데, 이들은 ‘고을’을 의미하는 ‘벌’을 나타내는 이두(吏讀)식 표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벽골(碧骨)’이라는 지명도 이같은 맥락에서 ‘벼골’ 즉 ‘벼의 고을’로 읽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불리다가 통일신라가 되면서 중국식 한자(漢字)지명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두식이건 한자식이건 이 지역의 여러 명칭의 공통점은 벼농사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김제는 그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역사시대 이래로 농업이 발달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제의 현재 구역은 과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여러 차례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현재는 전라북도 중양부의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동쪽은 노령산맥의 주 능선을 경계로 완주군과 남쪽은 동진강을 경계로 정읍시, 부안군과 북쪽은 만경강 및 그 하구를 경계로 익산시, 군산시와 인접하며 서쪽은 서해에 접하고 있다. 몇몇 산지를 제외하면 김제는 전체가 높이 50m 미만의 구릉지와 동진강, 원평천, 만경강 주변의 광대한 충적평야지대로서 호남지역 평야의 중심이 된다. 북쪽의 만경강과 남쪽의 동진강 사이에 펼쳐진 망망한 김제만경평야(혹은 김만평야)를 안은 김제는 전체면적의 거의 절반이 논으로, 우리나라 쌀의 40분의 1이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김만평야를 ‘정계 팽개 외에밋들’이라고 부른다.

김제만경평야를 황금들녘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물이다. 김제평야는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에 형성된 충적지가 중심이고, 두월천, 월평천, 신평천 등 두 강의 지류인 하천도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만경강은 옥구와 김제를 사이에 두고 흐르고 동진강은 조금 남쪽으로 흐르며 옥구, 김제, 부안을 관통하면서 그 양안에 기름진 땅을 만들어 놓았다. 이처럼 쌀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물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김제지역은 천혜의 땅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농사에 필요한 물을 가두었다가 농번기에 물걱정 없이 농사를 짓기 위한 방법도 고안해냈다. 저수기술이 오래 전부터 발달하여 온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 전에 축조된 것으로 벽골제를 들 수 있다. 축조 시기는 백제의 비류왕 27년 AD 330년 경이라고 추정된다. 당시 제방의 길이가 3.3km, 높이가 5.7km 상단폭이 10m, 하단폭이 21m 였다. 몽리면적은 약 10,000ha(3000만평)이 되었다. 저수지의 둘레가 약 140km였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찼을 때에는 그 면적이 5천 정보나 되었다고 한다. 또, 벽골제에는 5개의 수문이 있었다. 1문 수여거는 2문은 장생거, 3문은 중심거,

4문은 경장거, 5문은 유통거라고 한다. 이 수문 중에서 수여거는 그 물줄기가 만경현의 남쪽에까지 뻗어나갔고, 장생거는 만경현의 서쪽에, 중심거는 고부군의 북쪽과 부령현의 동쪽에, 경장거와 유통거는 인의현의 서쪽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벽골제는 그 당시 동양에서 가장 큰 저수지였고, 백제시대 이래 김제지역을 농업의 중심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벽골제는 보수공사도 부지런히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신라본기 원성왕 6년(790년)에 처음으로 보수공사를 할 때에도 7개주의 백성이 동원된 대 토목공사였다. 고려시대에는 현종(1009~1030년)때 벽골제에 대한 한차례 중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 인종 21년에도 벽골제 수축 공사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인종은 벽골제를 보수한지 3년 만에 무당의 말을 듣고 그 제방을 헐어버렸다고 한다. 이때의 무당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때 이후 벽골제는 고려 시대 말까지 방치되었다. 그러다가 조선의 태종 15년(1415년)에 전라도 관찰사 박습이 왕에게 벽골제의 보수공사를 실행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약 300년 만에 벽골제가 제 구실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복구된 벽골제가 5년 후인 세종 2년(1420)에 심한 폭우로 인하여 무너지고 말았다. 그 후, 보수와 폐기를 주장하는 논의들이 있었으나, 더 이상의 보수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¹⁾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던 벽골제는 역사 속의 수리시설로 남게 되었다. 일제시대인 1925년 벽골제의 제방은 그나마 둘로 나뉘게 되고 과거의 방죽은 논으로 바뀌었다. 섬진강댐을 건설하고 옥정호로부터 김제지역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가 지나가면서 벽골제의 모습은 크게 바뀌게 된 것이다. 역사시대 동양 최대의 수리시설을 자랑하던 벽골제를 대신해서 20세기에는 현대식 수리시설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김제평야는 여전히 국내의 쌀생산의 중심지로서 그 명성을 유지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쌀 생산지로서의 명성이 김제지역민들의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일제는 산미증산계획을 추진하면서 농업용수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일에 주력하였고, 따라서 간척지, 간척지를 개간하여 농토를 확장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였다. 강이나 바다에 둑을 설치하고 강 하구와 해안가의 갯벌을 농지로 바꾸는 간척 사업이 김제, 옥구, 부안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내륙의 섬진댐으로부터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간척사업이 가능하였다. 일제는 식민지조선의 농업시설과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식량증산에 힘을 쏟았다. 전통적인 쌀의 생산지인 김제지역 일대에 불어닥친 근대적 수리시설과 그에 따른 농사기술의 발달은 이 지역의 지도와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삶도 크게 변화하였다. 일제의 식민시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근대화의 실상을 김제지역의 한 농촌마을 주민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II. 외에밋들의 광활마을

1.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하며

외에밋들이 순 우리말 사투리로 넓은 들라면 광활도 같은 뜻의 한자어이다. 광활(廣闊)도 넓고 탁트인 곳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지명이다. 김제의 중심지에서 서쪽으로 약 15km를 가면 광활면에 이른다. 창제리에서 성덕면 남포리까지 논과 논 사이를 관통하여 거의 일직선으로 뻗은 이 길을 달리면서 좌우의 경관을 보면 이 지역의 이름을 광활, 만경 등으로 부른 이유를 곧 알게 된다. 자동차로 달리면 핸들을 꺾

1) 벽골제는 2개의 수문(장생거와 경장거)만 남아있게 되었다. 벽골제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서 1959년에 사적 11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1975년에는 남아있는 두개의 수문지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축조연대를 측정한 결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 않고도 20분쯤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길이 곧게 뻗어 있다. 지금은 지방도로 702라고 명명되었지만, 원래는 **신작로**라고도 불리웠다. 신작로는 일제시대에 조성된 길로 양쪽에 가로수를 심고 들판과 마을을 가로지른다. 당시 신작로는 농촌 근대화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구불거리는 길을 펴서 곧게 만들고 좁은 길을 넓혀서 차, 우마차, 사람들의 통행을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신작로를 통해서 드넓은 평야 가운데를 달리면 김제가 자랑하는 지평선의 장관을 마음껏 관람할 수 있다. 이처럼 넓은 들을 지나서 가려면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판이 없으면 방향을 잃을 만큼 ‘광활’함을 실감한다. 광활면은 동으로는 성덕면, 북으로는 진봉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서쪽으로는 동진강이 흐르고 곧 서해바다와 만나는 곳이다. 경사가 거의 없는 평야지대로 야산(野山)은 물론이고 집 앞의 동산(童山)조차 찾아보기 힘든데 광활에서는 민가산이 유일하다. 이름대로 넓은 평야에 농지정리가 바둑판처럼 잘 된 경관을 나타낸다. 그러나 간척지여서 자생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고 농토는 염분 영향으로 비옥하지 못하여 워낙 넓어서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적다. 간척이 되기 이전에는 이곳은 기름진 갯벌로 진봉만도 사람들은 이 갯벌을 끼고 어업으로 생업을 이어나갔다.

광활면은 현재 은파리, 옥포리, 그리고 창제리의 3개리 20개 마을 5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의 총 면적은 32.08km²로 김제시 총면적의 5.9%를 차지한다. 2002년 12월말 현재 812가구, 2,203명이 살고 있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여서 5년 전과 비교하여도 약 1,000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광활면사무소가 있는 옥포리에는 보건소, 우체국, 초등학교, 농협이 들어서 있다. 20개 마을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마을사람들은 행정적인 사무를 보거나 농사관계 일을 처리하려면 이곳으로 온다. 또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이 곳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가벼운 병이 나면 마을사람들은 이 곳에 들러 약을 타간다. 면사무소와 나란히 위치한 경찰서 분소에서는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옥포리에는 마을의 규모로 보아서는 비교적 큰 건물의 교회가 서 있다. 멀리서도 눈에 띄이는 십자가 첨탑이 면사무소 동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 면사무소 앞 길가에는 작은 규모의 상점들이 양 옆으로 늘어서 있다. 작은 잡화점이 있고, 음식점도 있다.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은 상점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농촌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로 한가해 보일 뿐이다. 중국음식을 파는 중식당도 있고 한식당이 두 곳 있다. 비교적 큰 방앗간은 예전의 영화를 보여주고 있고, 또 상호와는 동떨어지게 허름한 ‘수퍼마켓’이 마을 어귀에 먼지가 가득 낀 간판을 달고 있다. 이 상점가 골목길을 벗어나면 마을사람들이 ‘구길’이라고 불리우는 조금 큰 길이 나온다. 마을외곽을 도는 ‘신길’이 생기기 전에는 버스나 자동차들이 다니는 큰길이었다. 구길이라고는 불려도 비교적 곧은 신작로 길이어서 여전히 버스 등 큰 차들이 지나 다닌다. 구길에는 최근에 농협생활품 판매장이 크게 들어섰다. (이 마을의 지도를 그려야 함. 그리고 상징적인 건물, 공간 등이 사진으로 담겨야 함.)

2. 근대적 공간의 탄생

이 마을은 외견상으로도 부근의 다른 농촌 마을들과 차이가 눈에 띈다. 이러한 특이한 풍경이야말로 이 마을의 역사를 풀어내는 실마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농촌마을은 옹기종기 집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촌락을 구성하는 자연촌이 기본이다. 그런데 광활의 마을들은 바둑판 모양으로 농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풍경과 어우러져서 구불어지고 불규칙하게 이곳 저곳에 집들이 놓여있는 형국이 아니다. 하나 하나의 구역이 뚜렷하게 구별되고 한 구역에는 6채의 집이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크기로 나란히 들어서있다. 또 마을이라고도 칭하지 않고 일제시대의 유산인 답구(畓區, ㄱ다꾸)라는 명칭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원래 동진농업주식회사가 소유한 농장의 소작인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어서 회사가 운영

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마을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1답구에서 9답구까지 9개이 구역이 나뉘어져 있었고, 다시 3답구는 하나의 농구를 형성하였다. 이 농장의 대구역인 3농구와 소구역인 9개의 답구로 분할되어 있었다. 이 마을은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 비로소 독립된 행정마을이 되었다. 1949년 진봉면에서 분리되어서 3개리--은파리, 옥포리, 창제리--의 광활면으로 승격하였다.

해방 이후 이 마을에 일어난 일 가운데 마을사람들이 중요하게 기억하는 사건으로는 제방이 무너져버린 일이었다. 제방의 관리, 보수는 마을사람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바다에 뚝을 쌓고 간척을 하여서 농지를 만들고 마을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뚝이 무너져서 바닷물이 들이닥치면 농사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앓아가는 무서운 일이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을 되찾기도 전에 태풍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해방 후 동진농업주식회사가 물러나면서 제방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제방이 유실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정부는 긴급조치를 취해서 제방을 다시 쌓았지만, 원래의 제방 대신 새로운 곳에 제방을 구축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때 만들어진 제방을 신제방이라고 부른다. 해방 후 10년이 지난 후 정부지원 양곡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구제방을 복구하였다. 바다를 막아서 만들어진 땅이어서 제방의 관리는 이 마을의 존립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현재는 1991년에 시작된 새만금간척개발사업으로 제방 밖으로 다시 바다를 막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과거에 세워진 제방이 곧 유명무실해지고, 마을과 가까웠던 바다도 점차 멀어지고 있다.

(2) 마을 사람들

김제만경의 너른 들이 더 넓혀지면서 광활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김제만경의 모습이 완성된 것은 20세기 초 일제의 식민지 아래서였다. 식민통치 아래서 한국의 농촌은 부단히 변화하여 갔다. 한국인들 특히 민중들이 새로운 근대의 문물을 접하기 시작한 시기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서였다. 국가가 근대적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농업국이었던 한국의 모습은 쉬지 않고 달라지게 되었다. 착취수탈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한국의 행정정비가 필수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전통적 생활도 타파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마지 못해서 때로는 자발적으로 농민들은 새로운 근대적 생활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모습을 일제시대 조성된 간척지이며 생활공간인 광활을 통해서 잘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마을의 주민들 가운데 이 간척지 마을이 형성될 당시의 역사를 이야기해 줄 사람들은 많지 않다. 나이가 적어도 70세가 넘어야만 어릴 때의 경험을 기억할 수 있다. 동진농업주식회사가 생기고 농장의 소작인을 모집하기 시작한 때가 1929년이였다. 1930년대 초반까지 이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였다. 1935년까지 소작인 676세대가 타지에서 이주하여왔다. 이 즈음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증언하거나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노인들은 많지 않다. 그래도 아직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 아버지 또는 형이나 삼촌을 따라서 마을로 이주하여 온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노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광활의 옛 이야기를 재구성하였고, 그 밖에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자료들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마을 노인들은 광활의 역사를 증언하겠다는 열정이 대단하였다. 자신들의 기억에 바탕을 두고 구술로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틈틈이 기록한 메모장을 바탕으로 마을사를 다시 써주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오랜 된 사진첩이나 책력을 보면서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

였다. 마을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각 개인들은 각자가 서로 다른 부문에서 더 자세한 기억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같은 마을에서 거의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들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를 들면, 고석원씨는 마을의 교육제도 및 현황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들 보다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였고, 최재순씨는 기독교 교회 정신의 실천부분, 또 마을의 리더로써 방조제의 국가관리를 추진한 이야기 등을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최병호씨의 생애사는 한국의 근현대사의 질곡의 한 부분을 보는 듯하여 경건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안옥순, 양옥순씨는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마음 속에 품었던 이야기 보따리들을 펼쳐주었다. 그런가하면 박종환씨부부는 오래 전부터 차곡차곡 모아서 정리해 두었던 사진들을 꺼내 보이면서 가족사의 한 단면을 그려주었다.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볼 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과거를 그 고리에 엮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화자들은 연구자들의 질문에도 영향을 받게 되지만, 생애사를 담을 때 연구자는 듣는 사람의 역할에 소임을 다해야 한다. 광활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묻는 질문에 우리들의 정보제공자들은 이처럼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것을 광활이라고하는 공간의 축과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의 시간의 축이 만나는 지점에서 들으면 **마을문화사**를 엮을 수 있게 된다. 마을주민들이 살아온 삶을 마을문화사라고 부르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때로는 하나의 주제에 묶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펼쳐보이기도 하였다.

[중략]

6. 신교육의 도입

사립학교는 이미 1934년 1월 9일에 고문선이란 분이 와서 5답구에서 시작했다. 방 한 칸과 대청 한 칸이었다. 이민촌에서 그를 아는 분이 청한 바가 인연이 되었다. 고선생은 원래 전매소에 근무했었다. 그러나 이민촌 사정을 알자 마음에 변화가 왔다. 그는 천품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선비의 몸가짐이었다. (갯들, p229)

이민촌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대한 소작인들의 향학열이 높았던 것은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길은 교육뿐임을 절감한 데서 비롯된 듯하다. 해방 이전까지 동진농장 안에는 일제가 인가하여 설립한 간이학교와 동진농업주식회사가 농장 소작인들의 자녀를 위해 건립한 사립학교, 개인이 운영하는 서당 등의 교육시설들이 있었다. 사립학교(현재 고석원의 집: 화양 1구 672-26)와 간이학교(현재 강고남의 집: 옥포리 601)는 그 건물의 외형만 확연히 바뀌었을 뿐, 아직 그 자리에 건재해 있고 서당은 개인의 자택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사립학교는 동진농업주식회사가 소작인 자녀들을 위해 세운 교육시설이었다. 5답구 감독으로 있던 사이끼가 사립학교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34년에 건립되었는데, 그 위치는 동진농장 사무실(현 광활면사무소)이 있는 중심구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500m 쯤 떨어진 곳에 있다. 방 한 칸과 대청 한 칸으로 이루어진 사립학교 건물이 건립되자 동진농업주식회사에서는 연초제장의 추천으로 연초전매소에 다니던 고문선(1903-1985)을 교사로 임명하였다.

(1) 농장의 사립학교

고문선은 1903년 6월4일 김제군 백산면 석교리 552번지에서 부친 고영유(高永裕)와 모친 오명선(吳明善)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김제공립보통학교(4년제)를 입학한지 3년만인 1920년 3월 23일에 졸업하였다. 졸업 후에는 김제 연초전매소에 취직이 되었다. 낮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에는 가난하

여서 정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야학을 운영하였다. 각별히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고문선은 당시에 동진농업주식회사 내의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구하게 되자 연초전매소를 그만두고 1934년 농장으로 이주하여 사립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 학교는 동진농업주식회사에서 농장의 소작인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로 세운 것이었다. 당시 5답구장으로 있던 사이끼가 사립학교 건립에 힘을 썼다.

동진농업주식회사 안에 위치한 사립학교는 3년제로 운영되었다. 학교는 농장의 사무실이 있는 중심구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500m 떨어진 5답구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농장 안에는 약 670여호의 소작인 가구가 살고 있었다. 학교가 처음 열었을 때는 학생 수가 적었으나 해가 지나면서 학생 수가 130명까지 되기도 하였다. 한 선생님이 3학년을 백 명이 넘는 수의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선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매우 성실하고 열심이었다. 전 학년이 한반에서 수업을 하였다. 세 학년을 서로 다른 줄로 나누어 앉히고, 일학년을 가르치고 자습을 시킨 후에 이학년을 가르쳤다. 그리고 다시 자습시키고 삼학년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였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열의있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선생님의 말을 잘 따랐다.

학생들이 기억하는 고문선은 엄격한 선생님이었다. 홍향림은 후에 고문선의 며느리가 되었는데,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의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은 학생이었다. 홍향림은 12세(?)인 1942년에 사립학교에 들어갔다. 당시 사립학교에는 한반에 30 명정도가 있었는데, 여자아이들이 4-5명이 다녔다. 나이에 비해서 키가 작은 홍향림은 맨 앞에 앉게 되었다. 주의집중을 잘하면서 잡기장 노트도 잘 써서 선생님의 칭찬을 자주 받았다.

(2) 신교육의 내용

일제시대의 조선교육령(1911년)에 따르면 공립교육기관이거나 사립이거나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일본어(국어)교육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고문선은 학생들에게 조선어도 틈틈이 가르쳤다. 일제 말기 조선어독본이 없어진 후에도 학생들에게 조선어를 몰래 가르치기도 하였다.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의 재량권이 공립보다는 조금 나왔다. 당시 진봉소학교에서는 국어 즉 일본어사용이라고 쓴 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조선말을 쓰면 그 표를 빼앗고, 성적도 떨어뜨렸다. 당시의 교과목은 일본어, 조선어 외에도 한문, 산수, 음악, 체육 등이 있었다. 체육시간에는 일본에서 새로 들여온 축음기를 틀어놓고 체조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고문선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중에도 농한기를 이용하여서 야학도 개설하였다. 야학은 주로 농장에 거주하는 젊은 부인들이 다녔다. 낮에는 살림을 하면서도 밤이면 글을 깨우치며 공부를 하려고 야학을 다니는 여성들이 많았다. 당시 여성들의 학교교육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딸을 선뜻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궁핍한 살림에 딸을 돈을 내서 학교를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 어른들은 여자들을 가르쳐놓으면 ‘시집가서 편지만 쓴다’고 하면서 배움 자체를 신통치 않게 여기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어릴 때 사립학교조차도 갈 수 없었던 여성들이 결혼한 후 야학을 다니려고 하였다.

고문선은 근처에 있는 간이학교에서 조선인 성인들을 상대로 일본어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사립학교보다 3년 뒤에 세워진 간이학교는 1937년에 문을 열었다. 간이학교는 2년제였고 글을 모르는 소작인을 상대로 주로 일본어를 가르치는데 주력하였다. 비슷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간이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더 많았다. 학교라고는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집을 사립학교로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협소한 공간이었다. 그래도 음악 미술, 공작 체육과 같은 현대식 교과목을 가르쳤다.

당시 학교는 신식문화를 만날 수 있는 현장이었다. 축음기 소리가 나며 노래 소리가 들리고, 책상과 결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교과서와 공책, 연필 등을 사용하여서 공부를 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학습용 물품이 조달되지 않으면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고문선은 일본인 관리자들에게 이러한 물품의 조달을 특별히 부탁하여 보다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늘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한편으로 당시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위생관념이나 보건과 건강에 대한 교육도 빠트릴 수 없었다. 서양의 의학에 바탕을 둔 건강관리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이들이 다치면 구급약을 준비해놓고, 소독을 철저히 해서 상처치료를 해주었다. 학교에는 비상구급함을 설치해두고,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간단히 조치를 해주기도 하였다. 아스피린, 뇌신, 아까징기, 소독약 등이 당시에 구비되어 있었는데 매우 소략하기는 했어도, 학교를 통해서 농장의 아이들과 부모들은 새로운 의약품의 용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3) 사립학교에서 소학교로

농장의 소작인들의 자녀들은 대체로 사립학교를 졸업으로 정규학교 교육을 마감한다. 졸업은 아이들에게나 선생에게 모두 아쉬움을 주었다. 막 자라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지적인 성장도 활발한데, 한창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그들의 여건으로는 더 이상의 학교교육을 시킬 수 없었다. 1940년 사립학교 5회 졸업생들은 고문선 선생님에게 졸업선물로 책상을 기증하여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의 교육투자에 여유를 부릴 수가 없었다. 특히 일제 후반기로 갈수록 소작인들의 가계는 궁핍하여졌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내는 얼마 안 되는 학비도 못내는 형편의 가정도 많았다. 따라서 자녀들을 진봉소학교로 보내는 가정은 매우 드물었다. 더구나 만경, 김제, 전주로 중학교를 보내는 일은 생각하기조차 힘들었다. 학비만이 아니라 하숙비까지 부담하여 유학을 시켜야 했기 때문이었다.

사립학교를 졸업하고나서 여건이 되는 학생들은 근처의 소학교의 4학년으로 편입을 하였다. 고문선도 자신의 아들(석원)을 2년 동안 사립학교에서 배우게 한 다음 진봉소학교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소학교진학을 포기한 채 농사일을 돕게 된다. 당시에 진봉소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극소수였고, 부모들의 교육열이 남다른 경우였다. 이웃의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시오리를 걸려서 학교를 다니는 일은 보통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공부를 잘해야 했다. 입학시험을 치루어서 합격을 해야만 다닐 수 있었고 또 학비도 납부하여야 했기에 당시로서는 아무나 소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반 소인들이 자녀들을 소학교로 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4) 해방 후의 농업학원

사립학교는 해방이 되면서 문을 닫게 되었다. 고문선은 김일식(광활면의 초대 면장이 됨)과 함께 농업학원을 세웠다. 그러나 인가를 받지 못하고 곧 폐교되었다. 해방 후 간이학교도 폐교되고 일제시대 곡식창고 자리로 쓰였던 곳에 광활국민학교가 설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학교가 세워지고 고문선은 학교의 후원회장을 맡게 되었다. 외지에서 다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짓는 등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주민들이 현재 광활초등학교 교정에 고

문선의 공적비를 세웠다.

해방 이후 지역의 교육제도를 마련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교육청 산하 단체장을 여러 차례 역임하고 교육위원회의 부회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나아가서 지방의회의 면의원장직을 역임하였는가하면, 수리조합의 평의원도 역임하였다. 면장으로 추대되기도 하였으나 청렴결백하여서 면직원들이 일을 하기 힘들다고 고사하였다. (자료: 김제-광활면-TR20030112)

(5) 간이학교

사립학교와는 반대쪽인 동편에 자리 잡은 간이학교가 있었다. 이곳 간이학교는 사립학교보다 3년 후인 1937년에 생겼다. 학생은 1, 2학년 각기 30여 명씩이었지만 사립학교 학생들보다 굵어서 어른 같은 학도들이 많았다. 간이학교는 원래 1931년 6월에 부임한 우가키 총독이 고안한 식민지 교육 정책의 하나였다. 일본어를 배우고 쓰게 하여 좋은 일본 국민이 되도록 하는 2년제 단기 학교였다. 최초 설립은 1934년으로 37년까지 만도 전국에 팔백 팔십 교를 두었으며 해방 전까지는 이천 이백 교나 되었다. 이것은 일종의 농촌 계몽운동의 봉쇄책이었다(p. 231).

(6) 소학교

이날 후루가와와는 어린 소년의 인상을 잊을 수가 없었다. 이민촌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교육자로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다. 「소학교 입학쯤이야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 이민촌 넘어 진봉소학교에 가서 교장을 만나 얘기했다. 그리고 머리 좋은 간척지 애들은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실상 소학교 사정은 그 지방 아이들만 해도 넘친다. 이민촌 애들은 받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자연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전 농림학교 교장 말이니 거역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 나와 몇몇 이민촌 아이들이 소학교에 시험을 봐서 끼게 되었다(pp. 239-240).

일제의 초등학교 교육은 아동의 신체 발달에 유의하여 德育을 실시하고 생활에 필요한 보통의 지식 및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일본어)를 습득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입학자격은 6세 이상으로 수업 연한은 6년이었지만 지역 실정에 따라 4~5년으로 단축 가능하다. 교과목은 수신, 국어, 조선어, 산술, 일본 역사, 지리, 이과, 도화, 창가, 체조, 재봉(여자), 수공으로 주요 과목이었고+, 농업, 상업, 공업 한문은 선택과목이었다.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시작으로 1943년까지 제4차 조선교육령을 제정할 때까지 일련의 교육령을 통해 일제는 조선의 정체성을 말살하여 황국신민으로 동화하려는 정책을 강압적으로 시행해 나갔다. 특히 일제는 황국신민화 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1938년에 제3차 조선교육령을 제정하였다. 1931년 만주침략에 이어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면서 한국인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황국신민화 정책을 재빠르게 진행해 나갔다. 일상생활의 일본화, 일본어 상용, 창씨개명 등을 자행하여 조선문화 말살을 획책하였는데, 이때 교육 정책은 황국과 국수주의자들에 의해 창안된 「國體明徹」, 「內鮮一體」, 「忍苦鍛鍊」 등의 구호 아래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다. 아래의 사진에서 ‘나라의 체제를 분명히 밝힌다’는 ‘國體明徹’의 구호가 일장기와 나란히 선명하게 걸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신사참배, 正午默禱, 宮城遙拜, 국민복의 착용, 황국신민 체조의 실시에 이어 창씨개명까지 단행함으로써 천황제 파시즘적 군국주의 광란은 극에 달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고석원이 소유하고 있는 졸업앨범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왼쪽 사진은 신사를 중심으로 교장과 6학년 담임 선생을 좌우에 배치한 것으로 학교 안에 신사가 설치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진봉공립국민학교 신사는 교문에 들어서면 좌측으로 운동장 끝에 있었는데, 매일 아침 조회시간에 학생 전원이 모여 신사를 향해 참배했었다.

이 사진은 신사의 존립 여부뿐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6학년 담임이었던 아오마쓰(靑松)가 조선인이라는 점이다. 아오마쓰 선생의 원래 성은 심(深)이었다. 창씨 개명을 한 것이다.

창씨개명(創氏改名)은 조선인의 성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행한 일제의 정책이었다. 조선인의 황민화를 촉진하기 위해 1939년 11월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하여 한민족 고유의 성명제를 폐지하고 일본식 씨명제(氏名制)를 설정하였다. 일제 당국은 1940년 2월부터 8월 10일까지 ‘씨’를 결정해서 제출할 것을 강압적으로 관철시켜 나갔다. 일제는 관리를 동원해서 협박으로 강행하고, 성을 바꾸지 않은 사람의 자녀들은 학교 입학에 불허했으며, 창시하지 않은 호주는 비국민이라는 뜻의 ‘不逞鮮人’의 낙인을 찍어 미행하며 감시하거나 노무정용의 제1 대상자로 삼았다. 결국 많은 조선인들이 씨를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1943년 진봉공립국민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명단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943년 진봉공립국민학교를 졸업한 15회 졸업생은 모두 65명이다. 그 가운데 여학생은 8명으로 맨 아래 줄, 오른쪽에서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가 그들의 이름이다. 명단에 기재된 이름을 살펴보면 창씨개명의 흔적을 역력히 확인할 수 있는데, 고석원도 예외는 아니다. 그의 이름은 ‘고본훈’(高本薰)으로 개명하였는데, 사립학교 선생이자 강인한 성격인 고문선은 씨를 바꿀 수 없어 ‘고(高)’에 ‘본(本)’을 붙여 ‘고본’(高本)으로 하고 아들 ‘석원’의 이름을 외자인 ‘훈(薰)’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위에서 셋째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고본훈’(高本薰)이 고석원의 초등학교 시절의 이름이다.

당시의 학교는 신식문화를 만날 수 있는 현장이었다. 학생들이 책상과 결상에 앉아 교과서와 공책을 가지고 수업을 듣고, 선생이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혹은 축음기와 풍금으로 체조와 창가를 가르치는 모습은 새로운 광경이었다. 여기에 인체의 모형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를 설명하고 도르래를 이용한 역학을 실험하면서 한쪽에서는 전화의 원리를 살펴보는 기술을 담은 모습은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

고석원을 비롯한 64명의 학생들은 한 반에서 아오마쓰 선생을 담임으로 수업을 받았는데, 지리 시간에는 세계 지도를 펼쳐 놓고 일본의 전쟁 발발에 정당화하는 교육을 하였다고 한다. 일본을 기점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뻗어져 있는 지도의 선들과 칠판에 쓰여진 숫자들이 학교교육을 전쟁 수행의 도구로 삼았던 일제 말기의 교육 내용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진 하단에 붙여진 ‘~교실도 전장이다~’라는 제목은 교육의 파시즘적 성격을 뒷받침하고 있다.

파시즘적 군국주의 교육은 수업 시간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다. 가을에 열리는 운동회는 일제의 극단적인 군국주의가 놀이와 실현이라는 형식을 빌어 교묘하게 버무려 진행되었다. 남학생들이 주축이 된 ‘육탄’(肉彈)이라는 이름의 사진은 육체를 탄환 삼아 적진에 돌입하는 행동을 시현하고 있어, 일제의 가미가제 특공대 정신이 교육의 현장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탄’이라는 제목의 사진은 탱크(모형)를 사이에 두고 총을 들고 돌진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어 광기 어린 일제의 군국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전장을 방불케 하는 일련의 장면을 구경하는 조선인 부모들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이다. 6년 과정의 학교를 마치면 자식들이 징집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석원의 졸업 기념 사진첩은 일제 말기의 교육 내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것은 근대의 교육의 성격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3년제의 사립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곧장 부모의 일을 돕는 현장으로 들어갔다. 진봉공립국민학교(1941년 국민학교령이 제정되어 ‘소학교’로 불리던 것이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에 편입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싶어도 식민지 소작인인 부모에게 더 많은 교육에 투자하도록 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학문에 대한 열정을 접어야만 했다. 반면, 사립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극소수의 학생들은 근처의 진봉공립국민학교로 진학하였다. 사립학교 3년 과정을 마친 박종남(79세)과 고석원(75세)은 진봉공립국민학교(입학 당시에는 진봉소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하였다.

사립학교의 반대쪽인 동편에는 간이학교가 있었다. 간이학교는 사립학교보다 3년 뒤인 1937년에 설립되었는데, 2년제 단기학교였다. 간이학교는 1930년대 일제가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지방의 아동들에게까지 보통교육을 보급한다는 미명하에 만든 학교로 1934년부터 관립 보통학교에 부설되었다. 간이학교 설립은 1931년 6월에 부임한 우가키 총독이 고안한 식민지 교육 정책의 하나였으며, 그 목적은 일본어를 읽고 쓰게 하여 한민족을 황국민으로 만드는 데 있었다. 동화교육 정책이 주요 목적인 간이학교는 정규의 보통학교를 증설하는 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비교적 적은 재정으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일제 당국의 착상에서 비롯된 기관이었다. 간이학교는 1934년에 최초로 설립되어 1937년에는 880교, 해방 전까지는 2200교가 세워졌다. 학생은 1, 2학년 각기 30여 명씩이었지만 사립학교 학생들보다 곱아서 어른 같은 학도들도 많았다(『갯들』, p. 231).

(7) 서당

사립학교와 간이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학생들은 주로 서당에 다녔다. 당시 서당은 조선어는 물론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역사도 몰래 가르쳐 일본인들의 감시 대상이었는데, 총독부가 서당 규칙을 만들어 서당 설립과 교육 내용을 통제할 정도였다. 한일합병이 되던 해 전국적으로 1만개 정도였던 서당 숫자가 1919년에는 2만3천5백56 개로 급속한 성장을 했다는 사실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노력이 서당을 통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항일의 온상지였던 서당이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창씨개명, 신사교육, 한글교육폐지 속에서 위축되어 쇠락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서당의 자취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서당 건물은 세워지지 않았으나 서당 교육은 매일 개설되는 곳과 농한기에 개설되는 곳, 두 가지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다. 훈장은 다른 지역에서 오거나 이주민 가운데 한문을 잘 아시는 분이 가르치기도 했는데, 전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훈장의 교재는 천자문, 명심보감, 소학 등이었는데, 그 가르침에 대한 보답을 학동들은 거의 쌀로 대신하였다. 궁핍한 현실로 미루어 보아 쌀이야말로 가장 좋은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서당은 그 성격상 민족의식 고취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천자문, 명심보감, 소학 등은 조선시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과목이었고 또한 한문이 일제의 초등교육에서 주요하게 다루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학에 대한 열정으로 진봉공립국민학교나 사립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서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진봉공립국민학교 출신인 김성문이나 박성문은 한학을 배우고 싶어서 1944년 졸업 후에도 서당에 다녔다. 16세에 진봉공립국민학교를 졸업한 김성문과 박성문은 해방 전에는 물론 해방 후에도 서당에 함께 다녔는데, 특히 김성문은 꾸준히 한학을 공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듬해는 박노수를 훈장님의

로 모시고 한문을 배웠다. 박노수는 손자 박중환을 데리고 고부에서 이곳으로 이주했는데, 18세 이상의 성년에게 명심보감과 소학, 사례편람 등을 가르쳤다. 사례편람은 조선후기의 학자 이재가 편술한 관혼상제, 사례(四禮)에 관한 종합적인 참고서로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알려 주는 길라잡이였다.

“그게 그 양반이 호는 동호씨고 이름은 노수씨거든. 자는. 박노수. 노나라 魯자, 물뎡 洙. 호는 동녘 東자, 물 湖자 동호씨고. 그 양반이 전간재 선생이라고. 저 제화도. 그 제자. 한학으로는 아주 그냥. 그 양반이 여기 와 가지고 제쳐서 내가 한 해 저울인가, 다섯 달인가 다녔어. 서당.” (그 당시 서당은 어떻게 운영되었나요?) “예. 얼마씩 주죠. 한 철에 얼마. 쌀 닛 말씩 준다든가. 더 하게 생겼으면 더 배워야죠.” (몇 분이나 배웠나요?) “여덟 명인가? 여덟 명이었을 거요. 남자 아이들인데 대개 큰 사람들. 아직 어린 사람도 있겠지만 큰 사람들이기 따시로 그리고 그 전에 서당에 댕긴 사람도 또 인자 와서 배우는데, 교과서가 여러 책이지. 명심보감 배운 사람도 있고, 그라나몬 또 논어, 대학이네? 배운 사람도 있고. 실정에 따라 배웠었죠. 훈장을 하셨죠. 아니 그게 뭐 직업은 아니고, 농사지으면서 과외로.” (하루 시간은요?) “아,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상관 없어요. 아침부터 조반 먹고 가서 배우고 점심 먹으러 또 집으로 와서 점심 먹고 또 가서 배우고.” (학교 하교의 관계는요?) “학교 다넘서는 못 다니죠. 대닐 시간이 있잔디. 학교 나온 뒤에, 나온 뒤에 그리고 인제 내가 농사를 지니까. 늘 다니든 못하고 저울. 저울에 인자 일 없을 적에 인자 농한기 때 가는 것이지.” (기억으로 서당이 언제까지 운영되었나요?) “해방이 되고, 여기서도 밑에까지 거그는 늦게까지도 했어.” (훈장님은 여러 분제셨나요?) “아, 여럿이 있었죠. 그러몬 인자 훈장도 쉽게 말하자면 그 유식헌 분이 훈장허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었어요. 그러고 학교가 우리 있을 적에는 인자 어렸을 적에 학교로 가기 전에 도 서당을 다닌 수가 있잖애요.”

⇒ 김성문의 구술 TR20030204김성문2

김성문은 7세에 진봉공립국민학교(입학 당시에는 진봉소학교)에 입학했으나 허약한 체질로 인해 병을 자주 앓아 6학년 때 학교를 그만 두었다가 5년 뒤에 다시 6학년으로 재입학하였다. 1944년 학교를 졸업한 김성문은 한학을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해방 이듬해인 1946년, 광활로 이주한 박노수(박중환의 조부)가 개설한 서당에 다녔다. 박노수는 전우(간재)의 문하에서 수학한 학자였다. 이 마을에서는 아이들만 서당에 다녔던 것은 아니었다. 어른들도 있었다. 어른들은 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학업을 계속하거나 더 배우려고 다니는 이들이었다. 김성문이 기억하는 바로는 일정하게 수업료가 정해져 있었다기 보다는 예의로써 쌀 닛 말 정도를 드렸다고 한다. 서당은 해방 이후 최근까지 마을사회에 남아 있었다. 서당의 교육 주체는 조선인 훈장이었으며 기본적인 교과목은 천자문, 명심보감, 소학이었고 학동의 교육 정도에 따라 책이 선정되었다.

이상과 같이 동진농장 안에는 간이학교, 사립학교, 서당 등의 교육시설이 있었고, 궁핍한 현실에 시달리는 소작인이었지만 조선인 부모들의 교육열이 대단히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자료: (김제-광활-TR20030123김성문1, TR20030204김성문2, TR20030212고석원1)